

보도 일시	2021. 12. 30.(목) 16:00	배포 일시	2021. 12. 30.(목) 13:00
담당 부서	체육협력관 장애인체육과	책임자	과장 용필성 (044-203-3181)
		담당자	사무관 최은상 (044-203-3184)

장애인체육 인권 보호, 피해 대처 지원 강화 약속

- 12. 30. 문체부 제2차관, 폭력 피해 장애인 선수 부모 만나 의견 청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 오영우 제2차관은 12월 30일(목), 인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해 지도자에게 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 수영 선수의 부모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위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체육계 인권 상황을 살펴보고 인권침해 근절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오영우 차관은 인천시장애인수영연맹에서 일어난 수영선수 폭행 피해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하며, 상대적으로 장애인체육 분야는 폭력 등 선수 인권침해에 취약하고 피해 신고와 폭행 입증 등 사후 대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더욱 강화된 장애인체육 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스포츠 인권 보호를 위해 강화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장애인체육 분야에서도 실효성을 갖고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하고, 장애인 선수가 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등 피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오 차관은 훈련하고 있는 장애인 수영선수들을 만나 격려하고 장애인체육시설의 방역 관리 상황도 점검했다.

※ 현장 간담회 사진 별도 배포 예정

